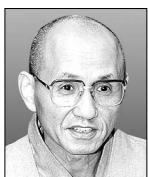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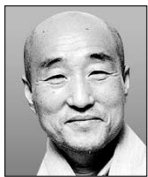


일주문



실업극복국민재단 이사장에
前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은 9월 2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실업극복국민재단 제17차 정기이사회에서 새 이사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해인승가대 총동문화 정기총회
합천 해인사 승가대학 총동문화장 일면 스님은 10월 20일 오후 1시 해인사 관음전에서 승가대 총동문화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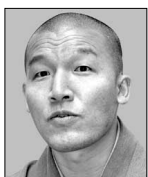
교직원 정기법회서 법문
동국대 선학과 교수 법문 스님은 10월 11일 오후 4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법당에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름답게 사는 길'을 주제로 법문한다.



3대 종교 연합바자회
서울 화계사 주지 수경 스님은 9월 30일 일신대 신학대학원 운동장에서 송암교회, 수유1동 성당과 함께 3대 종교 연합바자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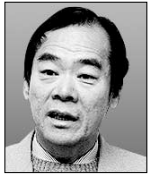
장애인 청소년에 장학금
강북장애인복지관 관장 영공 스님은 9월 26일 관내 청소년 및 장애가정 청소년 6명에게 총 80만원의 장학금과 문화상품권을 전달했다.



부석사 네 번째 산사음악회
서산 부석사 주지 주경 스님은 10월 14일 오후 7시 부석사에서 법능·능인 스님, 영광을 신부, 도종환 시인 등을 초청해 네 번째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불국정사 아미타부처님 점안식
대구 불국정사 회주 진귀 스님은 10월 1일 불국정사에서 조계종 원로의원 동춘 스님을 초청해 아미타부처님 점안 및 104위 신중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



네팔·한국 화가 상호초청 전시회
(사)가족아카데미 이근후 공동대표는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삼청동 갤러리 예티 하우스에서 제8회 네팔 한국 화가 상호초청 전시회를 연다.



제1기 재가불자임용교육
우리는 선우 성태용 이사장은 10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서울 장충동 선우법당에서 '제1기 재가불자임용교육'을 실시한다.



한국불교금강선원 제6대 이사장에
前 한국불교 금강선원 이흥표 감사는 10월 12일 오후 6시 서울 청량리 진주예식장에서 한국불교 금강선원 제6대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사리반환’은 불교 바로세우기 불사

‘현등사 사리·사리구 찾기’ 주역 초격 스님

현등사 사리와 사리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삼성문화재단이 ‘사리반환’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것에는 당해 사찰 주지인 초격 스님(사진)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선의 취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적대응을 불사한 삼성 측에 대해 치밀한 논리와 권리 주장으로 소송을 준비함은 물론 ‘현등사 사리 제자리 찾기 추진위’를 만들어 ‘천만불자 서명운동’ ‘리움박물관 사리 진건법회’ 등을 준비하며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님의 가피력 때문"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스님은 또 "불교 성물인 사리를 되찾아 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불교바로세우기'나 다름없다"며 "이를 통해 정의가 생동하는 불교 정토가 구현되기를 발원하는 마음으로 2년여 동안의 법적공방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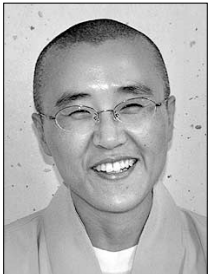
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한편 초격 스님은 "삼성 측의 '사리반환' 결정과 그 동안 사리와 사리구를 온전히 잘 보관해 준 것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11월 중 삼성문화재단과 공동으로 현등사에서 사리진건법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문화차이 때문에 수행 포기해선 안되죠”

외국인위한 '비로국제선원' 여는 자우 스님

“외국인 스님들이 한국으로 출가해서 생활하다보면 언어문제 등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특히 비구니 스님들은 체계적으로 습의식이나 출가생활에 대한 조언 등을 들을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적응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스님들도 많습디다.” 서울 홍제동에 외국인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비로국제선원'을 개원하는 자우 스님(사진)은 외국인 스님들이 한국불교를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싶다고 개인 취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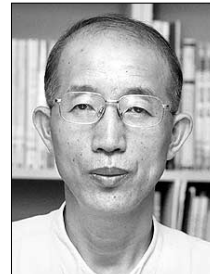
자우 스님이 국제포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2년 은혜사 백홍암에서 함께 수행하던 프랑스 비구니 스님인 무상 스님이 한국출가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 하면서부터였다. “무상 스님은 당시 언어에 대한 어려움은 물론 수행자의 본분과 자세, 서양문화와 한국문화의 차이점을 영어로 자세히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무척 힘들어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면서 외국인 비구니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선원을 꼭 세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우 스님은 비로국제선원서 매주 수요일 영어 <아함경> 법회, 금요일 잠선법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점차적으로 영어 테마 법회도 늘려 나갈 생각이다. 개원식은 10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주일 기자

“개인적 영광보다는 선후배들 노력의 결실”

보국훈장 삼일장 받은 김말환 군법사

“28년 동안 군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종단 큰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장병들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건강하게 군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월 1일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은 육군 교육사령부 자문사 주지 혜명 김말환 법사(육군 대령·사진)는 “군포교를 위해 평생을 바친 그 공로를 인정받아 보람과 자긍심을 느낀다”며 “선배 군법사들이 그동안 불교의 초석을 다졌다면 앞으로 후배 군법사들이 군 불교의 꽃을 활짝 피워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법사의 수훈은 전후방 각지에서 근무하며 군사철 불사 및 장병 포교 등 군불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이뤄졌다. 군법사가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김 법사는 정년이 3년 남았지만 후배들의 진급을 위해 전역지원서를 국방부에 제출해 내년 초 전역할 예정이다. 군법사 가운데 최고선임인 김 법사의 용퇴로 소령, 중령 계급의 베테랑 군법사들의 진급 적체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 법사는 “최근 젊고 유능한 군법사들이 진급 등으로 인해 군포교 현장을 떠나는 것이 마음 아팠다”며 “종단에서 군종교구 설립 등 군불교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어 후배 군법사들을 위해 용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개원 1주년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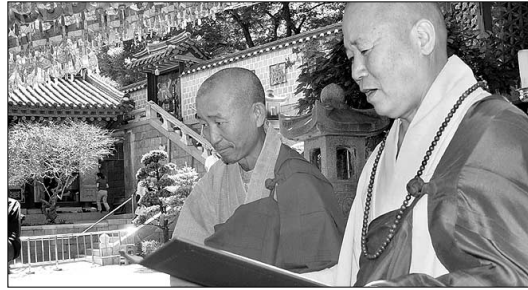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원장 이석현)은 9월 27일 병원 5층 대강당에서 개원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석현 원장은 기념사에서 “지역에 기반을 둔 전국병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기념식에서는 우수교직원 표창 등의 행사도 열렸다.

파키스탄대사부부, 불갑사 등 참배



주한 파키스탄 마수드 칼리드 대사 부부가 9월 25일 전남 영광군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마라난타사와 불갑사를 참배했다. 이날 불갑사 주지 만당 스님의 안내를 받은 마수드 대사 부부는 마라난타사에 조성된 간다라 양식의 불교미술에 관심을 갖고 파키스탄과의 문화교류를 제안했다.

도선사-인드라망 친환경공양미운동 협약



서울 도선사(주지 혜자)가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와 친환경공양미운동 협약을 9월 23일 도선사 대웅전 앞에서 맺었다. 이날 혜자·도법 스님은 1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친환경공양미를 사용한다는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부터 도선사는 친환경공양미를 불전에 올렸다.

생명나눔 부산본부 장기기증 캠페인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범어사 개산문에대제전에 참여해 장기기증 캠페인을 벌였다. 3일 동안 진행된 이 캠페인을 통해 42명이 장기기증 및 환자후원에 동참했다. 본부장 원범 스님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심회, 장애인위한 하루찾집 열어



조계사장애인포교단체 원심회(회장 김장경)가 9월 24일 서울 종로구 샘터다방에서 ‘제14회 아제아제 바라아제’ 하루찾집을 개최했다. 이날 자원봉사자들의 공연과 장애인인 만든 물품 판매전 등이 열렸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원심회 청각장애인 회원들에게 전달됐다.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 법어집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해와 달보다 더 밝은그대 안의 '옛거울'을 찾아라!

法玄



자기의 옛거울 하나가 시방세계를 고요히 비출 뿐 옛거울에는 분별심이란 본래 없는 것이다. 이 분별심이 본래 없는 데서 참구하는 화두를 바르게 깨치면 마음이 열려서 자기의 옛거울을 참으로 밝히게 되는 것이니 범부가 바로 성불하는 최상승 조사선의 도리이다.

“눈병이 난 사람이 두 가지로 헛보이듯이 중생의 분별심은 생사를 돌로 보게 합니다. 생사를 해탈하는 방법은 분별심을 끊어 버려야 가능하니, 분별심을 끊어 버리면 바로 자기의 마음 눈병이 치료되어 본래 생사가 없는 일심진여법계(一心眞如法界)가 현전(現前)하게 됩니다.” - 범문 중에서

도서출판 여시아문 : 서울시 중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연수동 309호
Tel: 02)2004-8225(출판부), 02)2004-8292(영업부), Fax: 02)2004-8297

여시아문

어느 것에서든 주체가 된다면 서는 곳마다 모두 참될 것'이라는 임제 스님의 종지에 따라 어디에서나 분별이 없는 참사람으로서의 삶을 강조하는 법현 스님의 사자후!



법현 스님 지음

신국판 양장본 / 416쪽 / 값 15,000원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 전국 서점 또는 '온라인 여시아문' 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여시아문 : 02)737-0695